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내 안에 깃든 영혼 성경: 마태복음 16장 24-27절

Tag: 영혼,4차원의영성,4th-dimension-spirituality,soul,
신약성경,마태복음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16:24-27)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사람마다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이 영혼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다른 동물이나 다른 영적인 존재와 공유할 수 없다. 각 사람마다 각각 영혼이 있다.

사람마다 영혼이 있다. 그 영혼도 생명이기에 당연히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배는 예절이기도 하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예절이 있기 때문이다. (숭배;하나님을 높임.-서양적, 예배는 동양적.훨씬 더 정확한 표현.)

사람에게 예절이 있는 이유는 각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에는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예절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그 예배가 예가 된다. 만약 다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은 예가 되지 않는다.

생물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생명을 네피쉬라 한다.(네피쉬부터는 단순한 DNA의 수준이 아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직까지도 과학이 손대지 못한다.)

물론 사람도 생명이 있는 생물이므로 네피쉬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체요 인격체라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 즉, 신격체와 관계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체를 인격체라 한다. (동물이나 물체에도 신적 생명이 내포되어 있다는 어떠한 주장도 거짓 주장이다. 그들에게는 네피쉬가 들어 있을 뿐이다.)

창세기2:7절에서는 이 독특한 존재를 נִשְׁמַת (니스마트/하나님의 숨결, 하임/live,살아있는), ‘생령’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영혼은 아직까지는 물리적,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만 살았다고 표현된다. 그 관계가 끊겨진 영혼을 죽은 영혼이라고 표현된다. (또는 거룩한, 더럽혀진) 거룩한 영혼을 히브리어로 ‘르아호 카도쉬’ 헬라어로 ‘프뉴마 하기온’이라 한다. (반면에 악한 영과 관계가 맺어진다면 죽은 영, 마치 좀비처럼. 산 것도 죽은것도 아닌 상태?를 상상할 수 있을까?)

루아호 카도쉬가 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루아호 카도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곧 이 거룩한 영혼이 영생을 누린다.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지금은 그 영생을 위해서 씨앗을 만들어야 한다. 즉,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사람의 삶이 곧 씨앗, 곧 열매가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보람되고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은 나의 영혼을 위한 삶이다. 나의 영혼이 소중하다. 나의 영혼은 나의 몸보다 더 소중하다. 물론 몸은 하찮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혼이 더 중요하다. 몸은 썩겠지만, 더 좋은 몸을 받을 것이다.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말씀에는 ‘목숨(한글)’이라고 번역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soul 이고, 한자로는 영혼이다. (굳이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데(단순히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시도로 봐야 함. 국면에 관한 것일 뿐 분리가 가능한 개별적인 것이 아님.), 영혼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원자를 전자와 핵으로 구별하듯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생물이 가지는 네피쉬 자체가 사람의 네피쉬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다.)

영혼의 가치는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이다. 영혼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한다. 자살이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무모한 짓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던져버리는 악행이다.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두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1. 진화론자; 어차피 한평생. 악착같이 오래 살고, 악착같이 짧게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모든 쾌락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솔로몬처럼 살자는 사람들. 이들에게 구원이란 영생이 아니다. 이들은 영생을 믿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 배터리를 최대한 충전하고, 또 재충전하고 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심지어는 남의 에너지까지 끌어다가 사용하려는 자들이다. 왜냐면 인생이란 한평생 뿐이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이 배터리를 최대한 자신을 위해 활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2. 세속 종교인; 영생과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이나 거짓의 영에게 속아서 갖은 헛고생을 하는 사람들. 인생을 저당잡힌 사람들. 마귀는 영혼의 주인도 아니면서, 생명의 주권자도 아니면서 기생충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 먹는다. 모든 종교적 율법주의자들. 이미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소모하는 자. 이 세상의 목숨이란 배터리가 아니라, 영생을 위한 씨앗을 만드는 것임을 잘 아는 것.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생명의 부활로 부르신다.

기적이란, 항상 이런 삶에 나타난다. 오직 영혼만 영혼을 살린다. 생명력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과 이어져야 영생이다.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본을 보이셨다. 희생하셨다. 섬기셨다. 친절을 베푸셨다. 나를 위해 그 목숨을 잃어버리셨다. 그 영혼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셨다. 아낌없이 모두 다. 왜냐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부활의 주인이시기에.

24절 말씀은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잃어버리는(소모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말씀이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소모하려거든, 목숨을 소모하려거든, 목숨을 잃어버리려거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 부르신 이유는 나와 이어지면서 먼저 내 영혼에 영생을 불어 넣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 영혼을 살리고, 비로소 그 다음에 내 영혼으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생명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지금 나에게 이어져 있는 악한 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진화론적인 생각,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 운명론, 사주팔자, 타종교, 모든 유치한 핑계 등을 부인해야 한다. 모든 세속적인 생각을 부인해야 한다. 나에게 이미 습관화 되어 버린 모든 악한 습관을 부인해야 한다. 잘못 길들여진 모든 마귀와 귀신과 관계된 더러워진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 씻어버려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회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자기 십자가란 영생을 얻은 자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랑을 베푸

는 희생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십자가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짐이다. 영적인 부담감이
다. 모든 더러운 부담감은 버리고, 모든 세속적이 부담감, 죄책감을
벗어 버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력을 소모하라!

그러면 당연히 생명력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할렐
루야!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